2023년 2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현대불교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4



▶한줄요약
신문사 기자와 문화재위원 송 서화가가 아디카야의 검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인도에 도착해 성물이 있는 스리나가르로의 여정을 준비한다.

스리나가르로의 여정을 시작하다

성물을 찾아서 1

불교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다. 정신적 세계다. 물질이 아닌 정신세계이다 보니 그것을 다룰 때 실증주의가 내세운 과학적 방법만으로 그 세계를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 왜냐면 과학은 가설을 먼저 세우고 관찰과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지만, 정신적 세계는 그럴 수 없다. 더욱이 근기가 약한 이들은 시각적 환영에 취약하다. 성현의 내부적 갈등까지도 현실적 시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학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저격한다.

오도는 형체 있음의 없음이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본성, 참 나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의식의 연속성, 그 윤회의 모습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문제는 실증주의가 내세운 과학적 방법만으로 그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질문은 18세기에 끝났다. 실증적이지 못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하여 매도되고 배척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실증의 눈으로 세계의 겉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일으키는 근원적이고 본질적 문제를 보지 못한다. 더욱이 그 세계의 내면을 파악해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일까? 한때 "불교" 그러면 무조건일 때가 있었다. 대학 졸업 무렵 홀로 외아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사경을 헤맸다. 가난한 대학생은 큰 병원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다. 결국 절로 올라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불교는 신앙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웅변하던 어제의 대학생이 아니었다. 매달릴 곳이라고는 그 분밖에 없었다. 무릎이 해어질 정도로 절을 올렸다. 기도 4일째. 부처님이 비몽사몽간에 보였다. 부처님이 아픈 어머니에게 감로수를 먹이는 꿈이었다. 꿈이었지만 현실 같았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 이게 부처님의 가피구나.

신문사에 들어와서도 이적을 믿었고 기적을 믿었다.

어느 날 수행이 깊은 스님을 인터뷰하던 중에 어머니가 사경을 헤맬 때 부처님이 오셔서 어머니를 살렸다는 말을 자랑처럼 했다. 그런데 그 스님의 반응이 무서웠다. 대뜸 이러는 거였다.

-혼침(昏沈)이다.

-혼침?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혼침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몽중일여(夢中一如)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몽중일여는 꿈속에서도 이게 무엇인가 하는 화두에 잡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깨침이 온다. 그게 되지 않으면 헛것이 보인다고 들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쇠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아! 내가 한동안 헛것에 미쳐 있었구나. 그래서일까? 아니 아니었다. 신문사로 들어와 기자 생활하면서 나는 점차로 옛날의 나로 돌아가고 있었다. 기자의 본분은 사실(fact)이다.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기복 신앙화 되어 버린 불교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불교는 신앙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주절거리던 예전의 잘난 체하던 대학생이 되지 않고는 그나마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가 없었다. 이적이나 기적 같은 기삿거리는 어디에나 널려 있었다. 그런 것에 미쳐 버리면 불교사상을 제대로 내비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머니 병환 중에 내가 헛것을 본 것이라는 판단이 제대로 섰다. 그만큼 간절했기에 나의 뇌가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깨우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칼이라고 한다. 그 먼 세월, 석존이 남긴 칼이 썩지도 않고 숨겨져 있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것이 내가 일전에 보았던 석존의 머리카락과 무엇이 다른가?

어쨌거나 나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분명히 가보면 헛것일 텐데….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믿자고 하면 설마 하는 생각이 앞섰다.

석존이 남긴 칼.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이 얼만가. 그가 남긴 성물이 지금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것이 세월과는 무관한 사리(舍利)라면 모른다. 쇠다. 녹으면 물이 되는 쇠다. 녹이 슬어 썩으면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 버리는 쇠다. 그것이 꽃이 되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설득력이나 있다. 우파니사드 식 윤회관이라던가? 사람이 죽어 연기가 되고 연기는 비가 되고 비는 풀이 되고…, 풀을 소가 먹으니 소가 되고 소를 사람이 먹으니 사람이 되고 사람은 연기가 되고….

지금 세월에도 쇠를 온전히 간직하기가 쉽지 않다.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그 세월이 무려 수천 년이고 보면. 더욱이 그 성물이 현대식 건물도 아니고 동굴 속에 있다고 한다. 겨우 군인들의 보호나 받고 있단다. 그보다 못한 것들도 잡인이 근접 못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성물이 동굴 속에 놓여 있단다. 지금이 육십 년대도 아니고 달나라 별나라 가는 세상에, 하기야 쇠보다 연약한 인육도 수천 년을 견디긴 한다더라만. 미라가 그것 아닌가.

인도라는 나라가 조건상 낭설이 진실처럼 떠도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속아 보았으면서,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었다.



모르겠다. 가보자. 가보면 알겠지. 암 그렇고말고. 가보면 알겠지.

국장은 내가 인도로 떠나기에 앞서 문화재위원 한 사람을 데려가도록 했다. 서화가이면서 골동품 전문가라고 하는데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성물을 보지도 못한 마당에 무슨 전문가야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골동품 전문가라는 사람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였다. 오십 대의 건장한 중년 신사였다. 이름은 송만성이라고 했다. 한눈에 연륜이 느껴지는 풍채였는데 코가 유난히 크고 뭉툭했다. 특별히 사진에도 관심이 많아 개인전을 두어 번 연 작가이기도 하다고 국장이 그를 추켜세웠다. 잘 됐다 싶었다. 사진 기자를 데려가지 못하는 터에. 그래서 국장이 그를 골랐을지도 몰랐다.

그 길로 두 사람은 한국을 떠났다. 최종 목적지는 스리나가르 아이슈 무쿠암.

우리는 먼저 인도 뉴델리 천추사원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에서 금원이라는 법명의 조실스님을 만나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오오스마라는 인도 뉴델리안 신문기자를 만나봐야 했다. 그가 인도의 고위층으로부터 빼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도에 떨어지고서야 안 것이지만 성물이 있다는 스리나가르로 바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다. 스리나가르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이 없었다. 비로소 안 것이지만 스리나가르는 인도 북서부의 카슈미르주의 주도였다. 정확히 말해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의 주도. 젤룸 강 연변에 있는 도시였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스리나가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신성한 도시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인도령이 맞았다.

-스리나가르에 가면 시내에 무굴제국의 왕들이 지은 수많은 정원들이 있어요. 그곳의 정원이 볼만하답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적들이 즐비해요.

이름난 휴양지라고 했다. 견사나 양모를 사용한 융단 제조가 성하다고 했다. 운하와 수로가 있고 배가 주요 수송 수단이란다.

-바로 갈 수가 있나요?

-공항이 있기는 한데….

스리나가르가 워낙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있다고 해도 군용 비행기가 전부라고 했다. 그마저도 우천 관계로 갈 수가 없다고 했다. 버스로 간다고 해도 아직은 길이 열리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기야 지금 세상,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천 관계라면 할 말이 없다. 억지로 가려면 하늘의 정거장이라고 하는 라다크 가는 길을 택해야 하는데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어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천상 걸어서 가야 하거나 우회도로를 통해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 그것도 스리나가르까지 교통편과 길을 잘 알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우리는 뉴델리 뒷골목을 찾았다. 여행자 거리 빠르간지에.

수많은 골목길. 지옥이 따로 없다. 중국의 위난성 리장 고성, 태국 방콕 카오산드로를 아시아 최대의 여행지로 꼽지만, 이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the hell). 어지러운 골목길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열악해 보인다. 여전하군그래.

골목마다 쌓인 쓰레기더미, 이곳에 오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계급사회의 진면목이 보인다. 이곳에서 하층 계급은 사람이 아니다. 지나가는 개도 그렇다. 어디에나 가난의 그림자가 늙은 유령처럼 얽혀있다. 여행객들도 돈 떨어지면 이곳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본토인인지 들어온 사람이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여행객들이 판치는 곳이 이곳이다.

사진 전시회를 두어 번 열 정도라고 하더니 송 서화가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연신 목에 맨 사진기의 셔터를 눌러대었다. 휴대폰을 두고 카메라를 메고 온 것을 보면 성능이 좋아 꽤 값나가는 사진기 같았다. 거무스름한 모습이 꽤 멋져 보인다.

중급 정도의 호텔에 들까 했으나 송 서화가도 이곳까지 와 굳이 비싼 방에 머물 이유가 어딧냐며 뒷골목으로 가자고 했다. 그도 젊었을 때 이곳에 다녀봐서 생리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았다. 최고급 호텔은 말할 나위 없고 웬만한 호텔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비싼 곳이 이곳이라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싼 방을 얻어 보자고 했다.

그런데 전망 좋은 곳은 여행객들이 다 들어차 구할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문득 문득 그녀 생각이 났다. 고개를 내저었다. 더는 생각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

여기저기 술집이 보였다. 음식점도 있고 마사지실도 있고 여인들이 몸을 파는 창녀 굴도 있다. 비릿하면서도 잘 익은 술 냄새 같은 것이 묘하게 전신을 감아온다.

-어째 짓눌렀던 마성이 살아날 것 같은 기분인데요?

내 말에 송 서화가가 호호하고 웃었다. 덩치에 비해 웃음이 여자 같다. 그도 뒷골목의 분위기에 좀 달뜬 표정이었다.

-이 나라 처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내가 물었다.

-대학생 때 몇 번요.

-그땐 더 열악했겠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요. 그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그 열악함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내가 이번에는 웃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생리에 맞게 난장을 치며 여행을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객기를 부렸는지….

-그럴 만한 땅이지요. 〈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